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수립

(2019~2023)

2018. 1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제1장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개요

1. 추진 배경	1
2. 계획의 목적	2
3. 계획의 성격 및 실행절차	2
4. 종합계획 수립 경과	4

제2장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제2차 계획의 성과	5
2. 제2차 계획의 한계	8

제3장 도서관 환경변화와 대응

1. 사회문화적 환경	10
2. 도서관 서비스 환경	11
3. 도서관 SWOT 분석	13
4. 국외 도서관계 동향	14

제4장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1.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	15
2.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16

제5장 제3차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18
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36
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47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56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개요

1. 추진 배경

1. 급변하는 사회·문화·정치·경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적 적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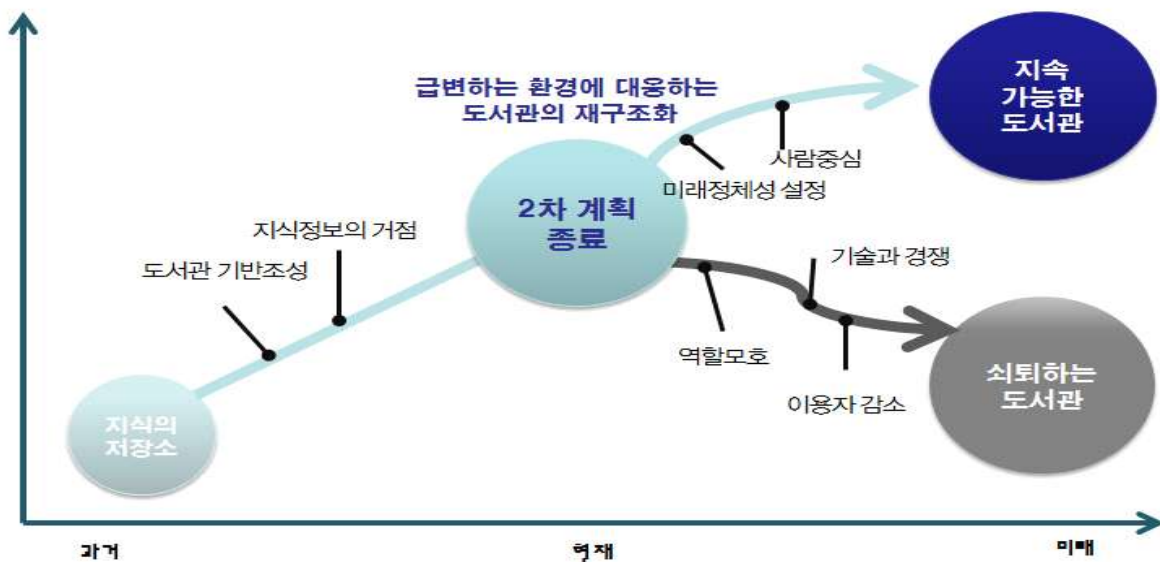
- 기술에 의한 인간소외,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쇠퇴,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경제·일자리의 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인식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
- 인간의 인식역량은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습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을 통해 형성
- 정보 소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여 정보와 사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틀 마련

2.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모색

- 기술 발달에 따라 그간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지적재산관리, 데이터 관리의 영역은 기술에 의해 대체될 위기
- 정보매체의 다양화, 이용자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으로는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
- 기술활용(technology application)과 기술방수(technology proof)의 서비스영역을 구분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와 동시에 인간 고유의 창조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

3.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법정 국가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2018년도에 종료되므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서관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 필요



II. 계획의 목적

향후 5년간 도서관이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 공동체, 사회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체계 구축

1. 도서관활동의 정책적 비전과 목표 제시

- 지방분권, 포용국가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분권 시대와 포용국가 시대의 도서관의 정책적 대응 방안 검토 및 미래방향 설정
- 경제적 양극화, 4차 산업 혁명 등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 도서관인력 역할의 재설정
- 지역의 쇠퇴, 인구구조의 변화, 욕구의 다양화 등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선도적 문화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다변화 모색

2. 도서관발전을 위한 중장기(2019~2023) 정책과제 및 사업 제시

- (포괄성) 관종별 도서관, 도서관 정보생태계 각 분야를 포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 (체계성) 정책방향, 정책과제, 정책지표, 자원투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
- (실효성)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과제 추진 로드맵 구성

III. 계획의 성격 및 실행절차

1. 계획의 성격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 계획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법률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법에 준하는 제도적·규범적 효력을 담보하므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계획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모든 관종을 아우르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계획으로서 도서관 분야의 최상위계획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9~2023년(5년마다 수립·시행)
- 내용적 범위: 도서관법 제14조에 제시한 기본사항 포함

3. 실행절차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도서관법 제14조)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5년마다 수립·시행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통보(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시행계획 수립지침 심의·확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도서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정책과제별로 종합·정리, 수립한 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확정 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
- 재원의 조달(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 가능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실행절차

구분	행위주체
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②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침마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③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④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⑤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확정,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종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확정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통보
⑥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⑦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IV. 종합계획 수립 경과

1.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18. 4~11월)

- 제2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도서관 대내외 환경분석 및 대응 방향,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사업 발굴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종별 도서관 전문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회의

2.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서관정책포럼('18. 6~8월)

- (분야) 서비스, 정보불평등, 거버넌스, 인력 분과
- (인력구성) 도서관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1명
- (활동)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사업 발굴·검토

3. 대국민, 도서관계 의견수렴('18. 6~8월)

-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기타 자유주제 의견
- 국민의견 35건('18.6.1~6.29), 도서관계 의견 175건('18. 7.23~8.24)

4. 도서관대회 설명회('18. 10. 25)

- 전국도서관대회('18. 10. 25): 강원도 정선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정책방향 공유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워크숍('18. 11. 29~11.30)

- (참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진, 도서관정책포럼 분과장, 도정위원 등 21명
- (내용) 종합계획 초안보고, 비전빌딩 및 정책방향 의견조율

6. 향후 일정

- 관련부처 의견 수렴('18. 12. 7 ~12. 17)
- 대국민 공청회('18. 12. 12)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18. 12. 21)
- 종합계획 발표 및 관련 부처 통보('19. 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I. 제2차 계획의 성과

1.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지속적 확충

○ 공공도서관의 증가로 도서관 접근성 향상

- '17년 공공도서관 1,042개관으로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4.9만명 달성
- 학교도서관 설치율 증가('13년 97.5% → 98.3%)

구분		2013	2017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수(개)	865	1,042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명)	59,123	49,692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수	11,143	11,644
	도서관설치율	97.5%	98.3%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수	430	453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7 교육통계연보

○ 국민 1인당 장서 수 향상

-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 2.03권으로 IFLA/UNESCO 최저기준(2~3권) 달성

구분		2013	2017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장서량(권)	97,075	100,734
	국민 1인당 장서수(권)	1.64	2.03
학교도서관	1관당 평균 장서량(권)	13,242	15,877
	학생 1인당 장서수(권)	22	30.5
대학도서관	1관당 평균 장서량(권)	302,633	365,630
	학생 1인당 장서수(권)	26	33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7 교육통계연보

2. 대체자료 제작, 다문화서비스 확대로 정보서비스 포용성 확대

- 공공도서관 장애인 자료실(혼합형 포함) 146개관 설치 및 장애인 도서자료 수 연평균 8.2% 증가
-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는 연평균 16.9% 증가

<공공도서관 장애인용 인쇄자료 수 및 이용자 수>

(단위: 권,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자료수	319,323	264,598	-17.1	300,491	13.6	421,391	40.2	437,607	3.8	8.2
이용자	511,711	624,989	22.1	523,339	-16.3	925,655	76.9	956,810	2.4	16.9

- 공공도서관 다문화자료실(혼합형 포함) 176개관 설치 및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17년 2,310개)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독서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공공도서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확대('17년 53,519개 운영)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생활밀착형 지식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확대('17년 561개관 참여)
- '길 위의 인문학' 활성화 ('17년 403개관, 5030회, 138,519명 참가)
-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확대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도서관·독서 관련 프로그램 강좌수 및 참가자>

(단위: 권,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강좌수	22,280	24,134	8.3	28,526	18.2	24,198	-15.2	24,580	1.6	2.5
참가자	4,892,620	5,272,046	7.8	4,621,048	-12.3	4,962,915	7.4	5,820,133	17.3	4.4

4. 도서관 협력체계, 정보의 연계·공유 활성화 기반 구축

- 기관별 오픈엑세스(Open access) 정보자원 150만 건 아카이빙 및 유통
- 공유저작물 통합관리 추진 및 공유저작물 서비스 확대(고서 5,407건, 고신문 기사 1,191,750건)
- 공동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총 1,199개관 참여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제공건수>

(단위: 권,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제공건수	1,394,923	1,828,822	31.1	2,089,009	14.2	2,747,218	31.5	3,041,140	10.7	21.5

5. 국립도서관의 역할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기반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자료 납본근거 마련 및 디지털자료 확충
 - 2016년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의 납본부수를 2부에서 3부로 확대, 디지털 파일 납본을 통해 공공간행물 수집
- (국회도서관) 고품질 의회정보서비스 제공(의회정보회답 3,548건, 팩트북 7회 발간, 외국법률번역DB 811건, 법률쟁점DB 653건, 맞춤형 법률정보회답 1,814건)
-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원문DB 250,082건 구축 및 법원 도서관 홈페이지 및 종합법률정보 이용 활성화 (15.1백만 건)

6. 교육·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강화로 향상된 학습환경 제공

- 교과연계수업 강화 및 정보활용교육 확대(학교별 학기당 평균 5개 교과, 평균 98시간)
- dCollection*(digital Collection,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창의적 연구환경 제공
 - *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등 대학 생산 학술자원의 수집, 유통 및 공동활용
- 학술정보자원 접근성 및 공유 강화('17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일평균 이용 68천건)
- 공공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전자원문정보 서비스 624만 회 제공
 - 농업과학기술정보DB 6,599건('17년) 구축 및 북세미나 등 농업과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12회, 맞춤형 연구지원정보 587건 제공
 - 국내 의과학 학술지 수집력 75%→80%로 강화 및 서지DB 6.1만건 구축('17년) 등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내실화('17년, 3,080백만원)
 - 정책정보종합목록DB 총 65만건('17년), 정책정보원 20,000건 구축

7. 도서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발의(도종환 의원, '17년 2.7) * 교문위 상정('17년 9.19)
 - 국가·지방자치단체·도서관의 책무 강화, 도서관등록제도, 도서관의 날('17년 4.12) 지정 등
-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관련 설문조사('18. 1~3월) 및 결과공유 토론회(5월)
-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용역('18.7~12월)
 - 도서관등록요건(사서·도서관자료·시설), 등록심사의 방법 및 절차, 사서배치기준 개정, 도서관 시설·도서관 자료의 기준과 운영기준 신설 등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15년)
-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16년)
 - *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18년)

II. 제2차 계획의 한계

1. 도서관 이용자수와 대출의 감소

○ 1관당 이용자수 및 도서 대출의 감소 지속

- 학교도서관의 1관당 대출도서수가 미세하게 오른 것을 제외하고, 도서관 전반적으로 방문자수, 대출도서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 및 대출도서 수>

구분	1관당 방문자 수 및 대출도서 수	2013	2017
공공도서관	1관당 방문자수(명)	331,813	261,103
	1관당 대출도서 수(권)	151,618	121,528
학교도서관	1관당 방문자수(명)	6,416	6,089
	1관당 대출도서 수(권)	11,340	11,410
대학도서관	1관당 방문자수(명)	383,932	342,727
	1관당 대출도서 수(권)	62,778	51,164

2. 도서관·도서 관련 서비스 집중으로 문화서비스 약화

-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강좌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공급현황 및 참여자수>

(단위: 권,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관당 문화 프로그램	31	28	-9.7	30	7.1	32	6.7	27	-15.6	-3.4
1관당 참여자	6,404	6,085	-5.0	5,006	-17.7	4,934	-1.4	5,072	2.8	-5.7

3.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서비스 확장 미흡

- 일자리 문제가 청년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도서관이 역량 증진을 위한 학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창업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미흡
- 대학도서관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등에서 수요자의 관심 주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제서비스 여전히 미흡

4. 원격 정보접근, 도서관 빅데이터 이용의 정체 지속

- 대학의 여건에 따라 학술정보에 대한 관내 접근뿐 아니라 관외 원격 접근의 불평등 지속
- 저작권법, 출판계와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원격이용과 정보자원의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지 못함

5. 지역도서관의 자율적 서비스 기반 마련 미흡

- 13개 지역에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설립 되었지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 및 역량을 갖추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법정 업무가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차별성 부족
- 지역자료의 보존, 도서관 공간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추진 미흡('17년 현재 5개 지역 설치)
 - 공동보존서고 운영 가이드라인, 전담부서, 전담인력 부족
- 지역 지역의 향토자료등 공동체 자료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지역의 기억이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6. 정보서비스의 사각지대 지속

- 장애인 도서관의 지역 불균형(42개관 중 서울 16개관, 경기도 5개관)과 시각장애인 집중현상 지속
- 교도소 도서관은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전담인력이 1명도 없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빈공 등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계층은 아예 도서관 이용욕구조차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필요

7. 도서관 서비스 인력의 충원 및 역량강화 미흡

- 장서, 관종별 도서관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의 핵심인 인력의 충원, 역량 강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음. 인력의 충원도 주로 비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좋은 일자리에 기반한 좋은 서비스 여건 미흡
-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등은 운영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

<관종별 1관당 사서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도서관(명)	4.2	4.1	4.2	4.2	4.3
대학도서관(명)	4.4	4.3	4.1	4.0	4.1
학교도서관(명)	0.39	0.43	0.45	0.49	0.50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 환경변화와 대응

I. 사회문화적 환경

1. 인구 환경의 변화

-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오너스의 시대
 -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18년)에 진입했으며, 향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65세 이상의 고령인구: '17년 13.8% → '60년 41%)(통계청, 2018)
 - 저출산('18년 합계 출산율 0.96~0.99)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늘어나는 고령인구 부양 능력을 감소시켜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다문화 사회
 -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년 186만 명으로 총인구의 3.6%에 달해 전라남도 인구와 비슷한 규모('17년 전라남도 인구 182만 명)(행정안전부, 2017)

2.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

- 지역 불균형의 가속화, 지역의 쇠퇴 및 소멸
 - 경제, 교육, 교통, 주거, 문화 전반에 걸쳐 지역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 쇠퇴와 소멸이 진행 중
 - 전국 228개 중 89개(39%)가 소멸할 위험해 처해 있고, 소멸위험 읍면동에서의 27만 2천명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고용정보원, 2018)
- 급격한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사회적 갈등 증폭
 -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지표 중 공동체(사회적 지원관계망, Perceived Social Network Support) 지표에서 38개국 중 37위(OECD, 2016)
 - 압축 성장에 따른 문화적 급변, 정치적 견해차이, 일자리와 빈곤의 문제들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14년 56.2%→'16년 6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3. 경제 환경의 변화

- 저성장 시대, 노동시간 단축
 - 고도성장기의 핵심 산업이었던 노동시간 의존형 산업의 정체, 산업의 체질개선으로 인해 3%내외에 저성장 지속('19년 2.7%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담보하지 않는 상황의 지속, 과로사회 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년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실시로 향후 여가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 산업·경제·노동 체질변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고용율, 66.7%, 실업률 3.5%, 비정규직 비중 33%, 청와대 일자리 게시판)
- 18년 1분기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

* 상위·하위 20%의 소득격차

-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은 OECD에서 최고수준(45.7%),

4. 기술 환경의 변화

○ 초지능화, 초연결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 '초지능화', '초연결성'의 고도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경험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예측됨
- 사물의 지능화를 통한 인간이 배제된 사물끼리의 소통(IoT), 빅데이터(Big data)와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적 지능(AI), 새로운 시공간으로 경험(VR, AR)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교육

-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일자리-교육'의 삼각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포럼 보고서(2016)에서는 현재 일자리 중 710만개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예측
- 동 보고서에서 노동력 전략을 위한 우선과제로 현 직원 재교육 투자(65%)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기존의 노동력의 재교육, 평생교육에 주목

○ 4차 산업혁명,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정보, 윤리, 인간 소외의 심화 문제 등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음
-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 기술의 윤리성과 책임의 문제, 인간의 참여와 소외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

II. 도서관 서비스 환경

1. 도서관 수요환경

○ 독서의 감소, 선호 매체의 변화

- 성인의 독서율이 4년 사이에 12% 하락('13년 71.4% →'17년 59.9%)하였고, 서적구입비도 지속적으로 하락('10년 25,921원→'16년 15,234원)

- 전자책 유통('16년 전년대비 37% 증가)과 전자책 출판('16년 전년대비 17.8% 증가)은 증가하고 있고,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이용현황을 보여주는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건수'는 '13년 94.5건에서 '17년 261건으로 대폭 증가
- 모바일 원주민('95년~'05년 출생자 640만 명)인 20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텍스트 이용량 29.6%로 나타났고, 완독 비율은 42.4%(내일20대연구소, 2015)
- 글로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정보제공자(구글, 아마존 등)와 경쟁심화 가속화
- 여전히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 선호매체의 변화 등 이용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쇄매체를 선호하는 사람들,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음
 - 생활권 중심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와 맞물려, 문화기반시설 중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곳은 도서관('16년 16.1%,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 이용자의 변화, 욕구의 다양화
 -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서관이 서비스해야 할 대상의 변화가 동반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 도서관 이용이 급증
 - 문화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다양한 문화 장르를 넘나들며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향유의 옴니보어 성향이 확대되고 있음('17년 평균 17.2개 여가활동 참여, 국민여가활동조사 2017)
 - 문화소비에 있어 장르의 경계가 무너지고 동시에 기능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몰링형을 선호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사회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영역 간 중복 욕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 33.3%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중 문화서비스 중복 욕구가 가장 높음

2. 도서관 공급환경

- 정보매체간의 경쟁 심화
 -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양한 미디어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전달매체로서의 인쇄매체의 경쟁력 다소 약화
- 도서관 생태계와의 협력 난항
 - 출판계, 서점계 등 콘텐츠 제공자들과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의 한계 노출
- 도서관 역할에 대한 도전
 - 도서관의 역할인 인쇄매체의 보존·활용만을 고수하면 기술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회에 모든 부분에 충분히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요구 증대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대응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도서관 인력의 문제의 벽에 막힘

III. 도서관 SWOT 분석

1. 국가가 직면한 현안진단

○ 삶, 공동체, 지역의 균열 극복을 위해 도서관이 축적한 지혜(거인의 어깨)를 적극적으로 나눌 필요

구분	쟁점	진단
경제 환경	- 일자리, 고용창출, 경제적 양극화 확대, 저성장 지속의 위기	삶의 균열
인구 환경	- 인구 오너스의 시대 진입, 다문화 사회로 이행	
사회 환경	-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심화, 세대 간의 갈등 다양화	공동체·지역의 붕괴
기술 환경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의 소외, 노동력 대체	사회적 불균형
지역 환경	- 인구 감소와 지역쇠퇴와 소멸의 위기, 지역 간의 역량/기반 불균형	

2. 도서관 SWOT 분석

○ 도서관의 능동적 사회개입을 위해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와 강점을 활용하여 위기에 대처할 필요성 증가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서비스 리더 ▪ 접근성 탁월 ▪ 신뢰도 높음 ▪ 콘텐츠(데이터)의 보고 ▪ 상대적으로 역량자원 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조직/예산 부족 ▪ 정보자원 공유의 여건 미흡 ▪ 관행적(전통적) 도서관 정체성에 익숙 ▪ 도서관서비스 품질 편차 ▪ 딱딱한 분위기, 올드한 공간, 기능적 폐쇄성 ▪ 국가도서관체계 미흡 ▪ 위기감 과다(역할, 정체성 혼란)
기회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의 증대(주 52시간제) ▪ 생활문화의 중요성 증대(생활 SOC 등) ▪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 진짜 정보에 대한 욕구 증가 ▪ 데이터 경제의 부상 ▪ 평생교육의 중요성 증가 ▪ 미래 인간의 능력에 대한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에 의한 노동대체 위기 ▪ 서비스 다변화에 대한 요구 확대 ▪ 저작권법과 공공서비스의 충돌 가능성 증가 ▪ 책 매체의 선호도 감소 ▪ 평생학습관과 역할 갈등 ▪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장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압박

IV. 국외 도서관계 동향

1. 도전과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삶, 공동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노력 중

도전 과제	쟁점	대응 방향
기술환경	- 4차 산업혁명 - 포스트휴먼시대	- 기술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 강화 -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논의 강화
지역환경	- 지역의 소멸, 쇠퇴	-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도시조성 - 지역의 역량축적 강화
사회환경	- 사회적 불평등 및 배제 심화 -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절벽	- 사회적 포용성의 강화

2. 도전과제와 국제 도서관계의 대응

- 정보매체의 다양화로 인쇄매체 중심, 관리중심의 서비스 한계에 부딪혀 **능동적으로 서비스 다양화 모색**
- 도서관의 기능적 역할을 극복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로 방향**을 재설정
- 기술을 활용한 **정보자원 전달과 활용의 극대화** 모색

도전 과제	쟁점	대응 방향
기술환경	- 정보관련 기술의 발전 - 미디어기술의 변화 가속화 - 기술에 의한 노동대체의 위기	-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자원의 연계, 공유 체계구축 - 기술격차에 의한 디지털 불평등 완화 - 면대면 서비스의 확대 -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 역할들을 갱신
지역환경	- 공동체의 붕괴 - 공동체의 현안들	-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 강화 - 지역사회에 파급력 있는 서비스 기획 - 문화서비스 리더로서의 역할 확대
정보환경	- 인쇄매체의 선호도 감소 - 대안적 정보제공자와 경쟁심화 - 정보과잉, 가짜정보의 증가	- 매체활용 교육의 강화 - 정보의 큐레이팅 - 진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 지속
수요환경	- 정보과잉에 대한 피로도 증가 - 도서관 공간공유 요구 증가 -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요구 증가 - 새로운 수요자 계층 직면	- 공간의 개방성, 포용성 확대 - 정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 지원' 서비스 확대 - 여성, 아동,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3차 종합계획(2019~2023년)의 비전과 목표

I.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

<p>비전</p>	<p>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p>
<p>핵심가치</p>	<p>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p>
<p>4대 분야 및 13대 핵심과제</p>	<p>1. 개인의 가능성 발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②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강화 ③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hr/> <p>2. 공동체 역량 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지역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⑤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⑥ 공동체 교류의 플랫폼 기능 강화 <hr/> <p>3. 사회적 포용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정보의 포용적 공유 확대 ⑧ 공간의 포용적 개방 확대 ⑨ 서비스의 포용적 연계 확대 <hr/> <p>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⑪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⑫ 도서관 정보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⑬ 도서관 인프라 확대

II.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핵심과제	추진과제
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2. 소통·토론형 사회적독서 프로그램 확대
2.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1.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4. 지역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 3. 지역 도서관인력 관리체계 구축
5.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1. 국가 기억 및 지식 망라적 수집·보존 강화 2. 공동체 생활사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6. 공동체 교류의 플랫폼 기능 강화	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7. 정보의 포용적 공유 확대	1. 정보 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8. 공간의 포용적 개방 확대	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핵심과제	추진과제
9. 서비스의 포용적 연계 확대	1. 사회서비스와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10. 도서관 운영체계 제고	1.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2. 사서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3.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11.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3.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12.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1.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체계구축 및 확대
	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13. 도서관 인프라 확대	1.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2.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제3차 종합계획(2019~2023년)의 정책과제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 소통·토론형 사회적독서 프로그램 확대

②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③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1-1-1.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포스트 휴먼시대에 인간소외, 삶의 균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 필요
- 기술이 대체할 수 없고 삶의 풍요롭게 하는 역량인 감성지능, 윤리지능, 공공지능 등의 강화를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확대 필요
 - ※ 셀프러닝(self learning)의 발달로 인공지능AI의 진화 속도 빨라짐. 인간지능을 앞서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특이점(Singularity)'을 2029년경으로 예상함¹⁾
-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도서관은 대안적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추진과제

-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확대

* <클라우스 슈밥이 주장하는 인간의 미래역량>

맥락지능(context): 인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정서지능(emotion):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맺는 능력
 공공지능(public): 공동의 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능력

- 인문·문화·예술·체험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 공공도서관, 체험, 협업 및 창작공간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공간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 생애주기별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생애주기별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인간의 사회성·정서발달 단계,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응하는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1) 인공지능 연구자 레이 커즈와일 예측

1-1-2. 소통·토론형 사회적독서 프로그램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기술적 연결을 통한 반쪽짜리 소통, 고립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과거의 집단적 문화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 시대로 진행 중이지만, 권리의 주체들이 만나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함
- 서로 만나서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성숙한 사회로 이행 필요
- 세상의 모든 지혜가 축적된 도서관은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 독서가 혼자서 즐기는 취미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도구로 진화 중
- 생각의 나눔이 단순히 인식 속에서만 진행되지 않고, 현실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모색 필요

■ 추진과제

-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 ‘함께 읽기’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 독서토론 전문인력 배치 지원
 - 독서토론 공간 대여 지원
 - 1인 가구를 위한 ‘함께 읽기(Social Reading)’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1인 가구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함께 먹기(Social dining)와 유사한 형태의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아동·청소년을 위한 토론형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읽기-쓰기-토론을 연계시키는 독서프로그램 확대
- 독서 - 현장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
 - 독서학습과 현장학습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다양한 가용 자원의 연계를 통해 배움의 현실적용, 실천이 가능한 학습모델 개발 및 확산

1-2-1.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수요자들 존재
 - ※ 도서관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시간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접근성의 제약
- 시간과 공간 접근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서비스 확대 필요
 - 정보환경과 기술의 변화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및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서관 정보화 분야에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디지털 정보소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향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증가는 디지털 정보소비를 가속화 시킬 것임
- 정보습득의 즉시성(Discovery to Delivery)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민간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정보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추진과제

- 전자책 서비스의 확대
 - 저작권 소멸, 사용승낙 자료를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및 원격서비스 지속
 - ※ '17년 현재 저작권 소멸/사용 승낙자료 186,731권
 - 사용승낙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격접근 서비스 확대
 - 공공, 학교,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 점진적 확대
 - 도서관계와 출판계와의 지속적 협의, 공공형 전자책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

*<전자책 서비스(e-reading application) 사례>

◆ 대학도서관

- 코넬대학, 스탠포드대학, 듀크 대학 등 전 세계 30,000곳 이상의 도서관이 OverDrive 앱을 통해 서비스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 공공도서관은 RIBBY, 학교도서관은 SORA 앱을 통해 전자도서 서비스

- 도서관 WiFi 설치의 전면 확대

- 공공도서관 와이파이 전면 확대 설치('17년 93.1%)
- 학교도서관 와이파이* 우선 설치 및 확대

* 대통령 공약으로 학교와이파이 설치계획 중에 있고, 국정원과 논의 중

○ 모바일 도서관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 모바일 기술을 통해 출입 관리, 도서대출, 도서관 콘텐츠 편리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1-2-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책 이용과 관련해서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여전히 아날로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아날로그 서비스의 경우라 할지라도 물리적 접근성, 이용의 불편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책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필요
- 이런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책이음, 책바다, 지역 내 상호대차, U-도서관 등 관련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여전히 홍보의 부족, 참여가 여의치 않은 도서관이 존재하여 불편 초래

■ 추진과제

-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 대출증 공유시스템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 확대 구축
 - 학교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등의 참여 확대 유도
 - ※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는 '17년 1,119개관('18년 1,278개관 확대 계획) 참여
 -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서비스*' 확대('18년 기준 공공 883개관, 대학 149개관)
 -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 생활 속 U-도서관* 확대
 - * 공공장소에 무인 대출·반납기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접근성 높이는 서비스
 -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U-도서관 확대

정책과제 1-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 생애주기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 생애주기에 따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당 생애주기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도서관서비스 및 해당 도서관>

1-3-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와 장서개발 필요
 - 도서관 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층별, 연령별, 관심사별 등 다방면의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장서개발정책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적합한 장서개발에는 어려움 존재

■ 추진과제

- 도서관장서개발정책 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연구 및 수요조사 반영
-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추진 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 반영
 - 관종별 수요자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충과 활성화 계획 수립 촉구

1-3-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정보의 양 증가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피로도 증가
 - 정보와 콘텐츠 양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음
 - ※ 2008~2011까지 생산된 정보의 양이 그 이전까지 생산된 정보의 양을 압도(World Economic Forum, 2012)
 - ※ 2017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납본된 책의 양이 59,724권으로 한 달에 약 5천여 권
- 정보의 전문기관으로써 도서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정보제공 필요
 - 도서정보 및 사용자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화 시대에서 과잉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함
 - 도서관은 물리적인 장서의 규모를 늘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콘텐츠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큐레이션 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작업이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큐레이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부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정책 강화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 제공 필요
- 도서관 내부의 장서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대출 데이터와 온라인 서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도서관 특성에 적합하게 수서 및 기타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추진과제

- 도서관 정보나루* 참여도서관 확대
 - * 도서관 데이터를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공유센터
 - ※ '18년 기준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845개 참여도서관의 대출 현황 및 대출인기 도서 파악 가능, 연도별 공공도서관 대출 분석결과 제공
-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확대

- * 기존 자료에 가치를 덧붙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 자료의 관리·기획·설명을 통해 정보가공
- 디지털 큐레이션(학술정보, 주제분야), 북 큐레이션 등 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
- 도서관(사서)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사진, 자료, 이벤트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북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 구글, 네이버 등 상용포털 연계를 통한 디지털자료 이용 활성화 구축

1-3-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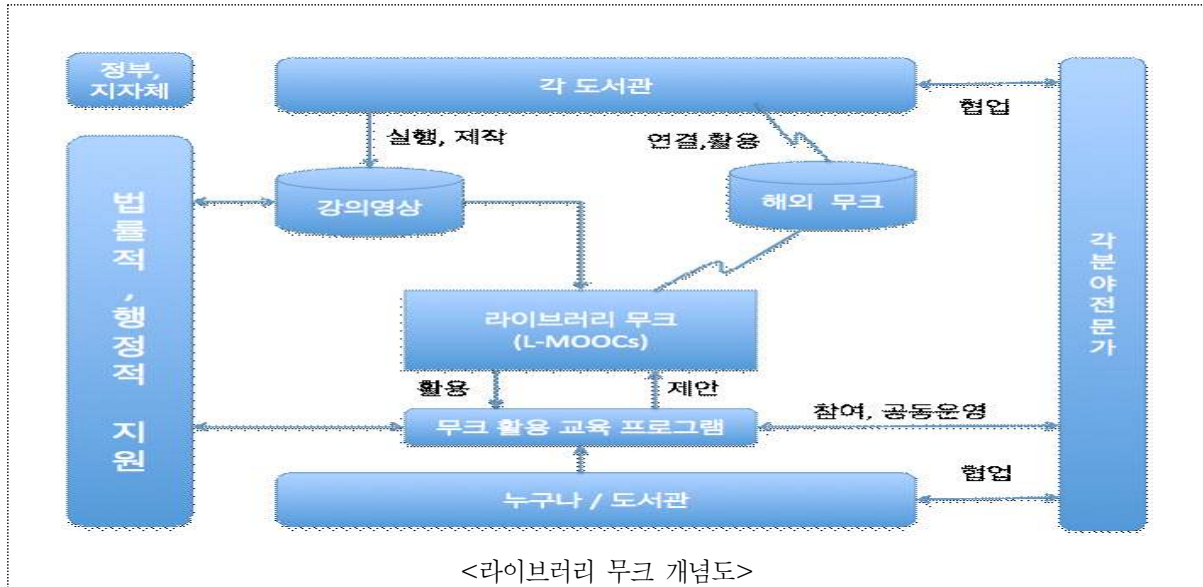
- 미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의인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급속하게 확대
 - 무크는 경제적, 사회적, 국적 등 모든 부문에서 제한 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세계 최고의 강의에 접속하여 공부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교육개혁이자 평생학습 방법
 - 스탠포드대학교 컴퓨터 공학 교수 앤드류 응(Andrew NG)과 다네프 콜러(Daphne Koller_ 박사가 2012년 설립한 코세라(Coursera)는 현재 190여 개국 10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컴퓨터과학 과 인문학, 사회과학 등 25개 분야 714개 수업 운영, 수강자 수는 약 2,200만 명
-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형 무크(K-MOOC, <http://www.kmooc.kr>)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의 참여 미흡
 - ※ '18년 31개 참여기관(대학 등)에서 377개 강좌 운영 중
 - 아직 국내에서 제공되는 무크 강좌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 폭이 좁고, 해외 제공 무크는 언어 등의 제한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음

■ 추진과제

- 라이브러리 무크(L-MOOC) 플랫폼 구축 운영
 - 도서관 강좌, 강연 내용을 영상제작하고 개방형 플랫폼에서 제공
 - 강연자와의 저작권 문제 등 법률적 근거나 표준 매뉴얼 등 제공
 - 도서관의 영상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설비 및 기술지원 제공

○ 국내외 무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개발에 시민참여 유도 및 전문가와의 협업형 공유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1-3-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생애 초기에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인간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북스타트 등 독서시작 프로그램의 중요성 증가
- 향후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이 더욱 가속화 되고, 아날로그 환경이 제거되면 생애초기 책 접촉 결핍으로 인해 지속적인 생애 기술종속이 심화될 수 있음
- 평생학습의 출발점으로서 책과 친해지고 생애초기 독서습관 필요

■ 추진과제

- 북스타트 운동 지속 확대
 - 북스타트 시행 기관의 지속적 확대, 책 놀이 활동 확대
 - 북스타트 부모교육 확대

<북스타트 시행 현황('15. 12. 31)>

시도구분	시행기관	꾸러미수	시도구분	시행기관	꾸러미수
서울	44개	17,498개	전남	5개	3,350개
경기	24개	12,868개	경남	25개	11,766개
인천	14개	5,999개	부산	3개	2,035개
충북	10개	16,162개	울산	15개	4,492개
세종	2개	303개	대구	2개	1,655개
충남	7개	3,734개	경북	12개	3,793개
대전	7개	1,052개	강원	10개	4,501개
광주	5개	2,870개	제주	3개	1,133개
전북	5개	1,112개			

1-3-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창조적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도서관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과 융합 연계 수업에 대한 필요성 증가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학교 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문제 해결 기능, 자의적 탐구기능, 비판적 사고기능을 신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교육 필요
-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따라 창의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과연계 독서교육 지원 필요
 - ※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16년 기준 연평균 도서관 협력 수업시간(공동수업)은 '1-6시간' 진행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실적이 없는 도서관은 28.3%
-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학교도서관은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추진과제

- 교과연계 수업 강화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정보·매체 활용 교육 정규 교과화 추진
 - 교과연계 교과과정 개발, 교과연계 장서 목록 개발
 - 학교 수업협력 및 교과연계 도서 제공
- 자기주도적 학습기회 제공

-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서관 활용 수업 확대
-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한 학습 확장 모델 개발 및 확산
 -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사업 진행
 - 학교-공공 협력형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1-3-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대학도서관은 학내 연구자의 다양한 학술정보 요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기여 필요
- 역량 강화 및 연구 수월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연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대학 내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학술 콘텐츠가 학내 여러 기관별(교수학습지원센터, 산학협력단, e-러닝센터, 부설연구소 등)로 분산 관리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 초래

■ 추진과제

- 강의연계 학습지원 서비스 확대
 - 강의연계 학습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학도서관 학습 연구지원 서비스 현황>

대학	전담부서/여부	주요서비스	특징
고려대학교	학술연구지원부	- 5명 전담 - 다양한 이용교육	LibGuide 시스템 자체개발
경북대학교	전담부서 없음 (담당사서제)	- 학과별 LibGuide 100여개 - 다양한 이용교육	학과별 1사서 전담
부산대학교	전담부서 없음 (담당사서제)	- 학과별 LibGuide 100여개 - 다양한 이용교육	학과별전담팀→주제도서관으로 분산·확대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지원팀 (학술연구성과관리실, 학과전담 연구지원실)	- 학과전담연구지원 6명 전담 - 연구성과관리업무 5명 추가	최근 조직 확대, 연구지원서비스 영역 확대, 세분
성균관대학교	전담부서 없음 (담당사서제)	- 45 Online Guides - 다양한 이용교육	연구과정 지원 다양한 Guide 개발, 통계/분석 등 연구자료 지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서비스팀	- 18 Research Guides - 다양한 이용교육	주제전문사서제→팀해체, 서비스 확대
전남대학교	교육연구지원팀	- 전담사서 5명, 분관 4명 - 다양한 이용교육	인쇄형 주제별 가이드, 전산팀 지원 미비

출처: 대학도서관발전진흥종합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한 연구

○ 대학 리포지토리* 구축 및 활성화

* 리포지토리 : 개방접근이 가능한 학술자원을 수집·관리하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형 저장소 또는 운영 시스템

- 기관 내 연구 결과물을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명문화하여 주제전문 DB와 통합운영

○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확대

- 융합 및 협력 연구를 위한 유사연구자/공동연구자 정보 제공
- 연구자에게 맞는 최신 공모과제 안내
- 학과별 주요 투고저널, 주요 키워드 트렌드 분석 서비스 제공

<도서관 연구지원 서비스 사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도서관

- 계량정보분석서비스, 셀프 논문비교분석 서비스

◆ 경희대학교 도서관

- 연구지원서비스 전용 블로그 개설, 주제별 안내 서비스 윈스톱 이용 가능하도록 페이지 구성, 주제별 정보조사 담당사서 지정운영

◆ King's college London Library

-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 제공

1-3-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생활 의사결정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한 가공된 정보(학술정보, 기후정보, 건강정보, 법률정보, 공공정보 등)를 선호하는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전문도서관은 통합 주관 부처가 없이 다양하고, 사립 전문도서관이 많아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17년 기준 전국 전문도서관 602개관,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참여 도서관 33개관(5.5%)

■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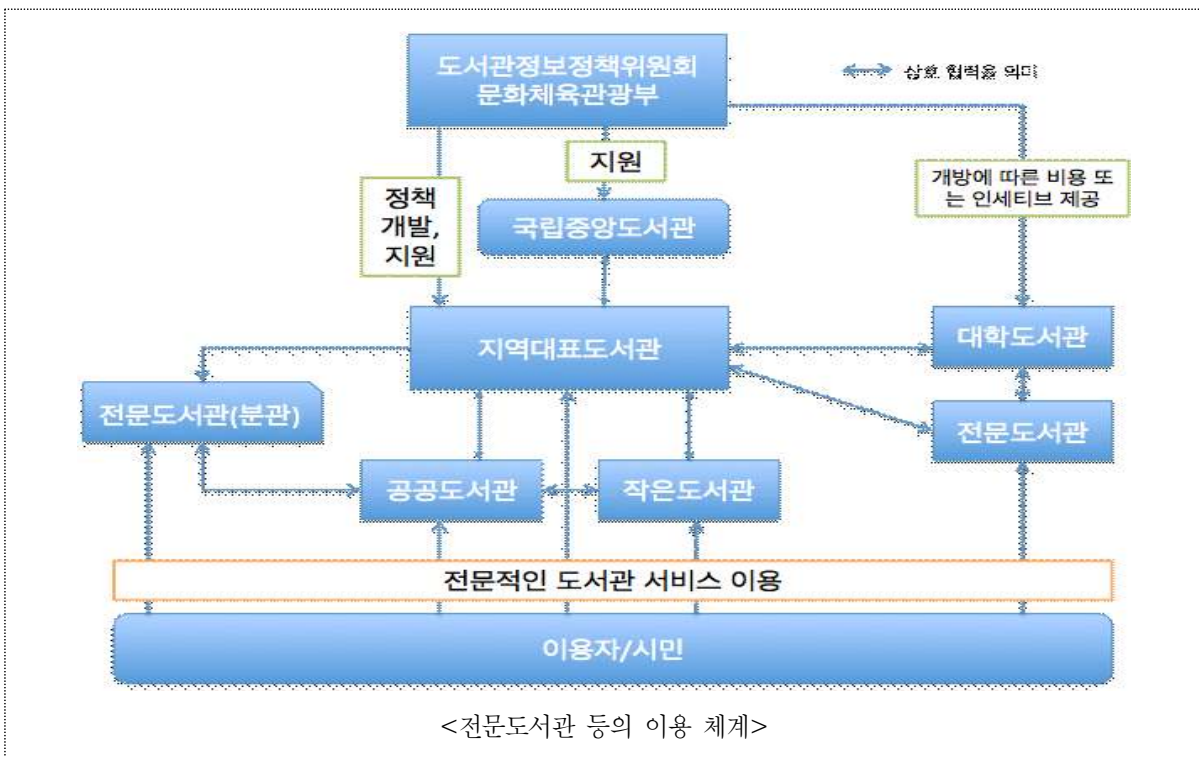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생활형 전문정보 공동 활용 운영전략 수립

- 전문, 공공, 학교, 대학도서관과 전문정보 협력서비스 체계 구축
- 전문도서관 전문자료의 디지털화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KISTI 등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국가 환경·기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대국민 환경 및 기후 정보에 대한 서비스 확대
- 국가 보건·의료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대국민 보건·의료 정보 서비스 확대
- 국가 공공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국가정보정책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 ※ 공공/민간 전문도서관 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170여 개관 구축
 -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 확대 지속

□ 국가 전문지식정보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전문도서관 현황조사 실시 및 활성화 지원
-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관리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과 KISTI 협력



1-3-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1-3-8-1. (국립중앙도서관) 미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지식자원의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 필요
 - 온라인자료와 디지털파일의 포괄적인 납본 수집의 한계
 - 세계 서지 환경 변화에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및 공유 생태계 조성 필요
 - 국내외에 산재·유출된 한국 고문헌의 통합 관리에 어려움
 - 보존서고의 수장능력 포화 대비 국가문헌의 보존·관리 대책 시급
 - ※ 연간 60여만권 장서 증가로 2023년 수장공간 부족 예상
- 이용자 중심의 국가도서관 서비스 강화 필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
 - 국가대표도서관에 걸맞는 다양한 계층별 서비스 개발 필요
 - 이용자와 소통하는 쌍방향적 홍보활동 확대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서비스 강화 필요
 - 디지털자원의 체계적인 장기보존관리 대책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디지털자원의 공유융합연계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국내외 도서관 협력·리더십 강화 필요
 - 전국 도서관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재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공간 및 전담인력 확보 미흡
 - 해외 한국학 진흥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확대 필요
 -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준비 필요

■ 추진과제

□ 국가지식자원의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

- 온라인자료의 납본 정착을 위한 납본 지침 보완
- 글로벌 지식정보 및 정책·연구자료의 전략적 수집

- 차세대 국가서지서비스 전략 수립 및 국가자료종합목록 서비스 고도화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고도화 및 활용성 강화
- 국가문헌 보존을 위한 (가칭)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 이용자 중심의 국가도서관 서비스 강화

- 전문화된 연구정보 및 정책정보 서비스 기능 수행
- 인문·문화예술 특화 콘텐츠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강화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 ※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및 탈북민 등
- 도서관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온라인 홍보 채널 다각화

□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

- 지역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코리안 메모리’ 프로젝트 추진
- 개방형 연결데이터(LOD) 기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확대
- 디지털화자료 이용협약 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
 - ※ 병영, 농산어촌 등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서비스 지원 확대

□ 국내외 도서관 협력·리더십 극대화

-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및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 도서관 인재 교육을 위한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 해외 한국문화원 및 한국자료실(WOK) 운영 지원 강화
- 한국학 사서 지원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1-3-8-2. (국회도서관) 의회 법률정보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지원 기능 강화 필요
 -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의회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 국민의 입법지식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활용
 - 외국정책정보서비스 전문화 강화 필요
- 의회정보서비스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의회정보회답 및 데이터베이스의 시의성 확보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고품질의 의회정보 관련 자료발간 및 DB구축으로 입법지원 기능 제고
- 상임위원회 전담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지식정보체계의 전문성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 신속하고 선제적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신속한 법률정보회답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정보분야 조직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국내외 입법현안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여 선제적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주요 법률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넓은 법률정보 제공
- 온·오프라인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 망라적 법률자료 수집 및 법률 전문가에 의한 외국 법률자료의 균형 잡힌 장서 개발 추진
 - 법률정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에 따라, 디지털 법률정보 요구와 법률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 대두

■ 추진과제

□ 고품질 의회정보 제공을 통한 국회의 입법역량 제고

- 의회정보회답 제공
 -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실정보 요청에 대한 정보회답서비스로 국내외의 정책현황, 사례, 통계 등 입법 관련 사실정보를 조사검색하여 제공하고, 주요 국가 언어담당 해외자료조사관이 외국의 제도 및 정책사례를 조사·번역하여 제공
 -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 입법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팩트북* 발간
- * 팩트북: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시리즈」 로 발간하는 자료집), 「최신정책정보: 국내/국외」 등

□ 의회정보서비스의 적시성 및 전문성 향상

- 의회정보DB 구축 및 서비스
 - 국회휴먼네트워크 서비스, 입법지식서비스, 공공정책정보(인터넷자료)DB, 국회의원정책자료DB,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DB 등

□ 법률정보발간 강화 및 신속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입법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입법사례 및 시사점을 선제적으로 발간
- 국회의원의 관심이 높은 영미법, 일본법을 비롯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회답 제공을 위해 법률

전문가 확충

- 현안이 되고 있는 국내 법률에 관련된 주요국 법률의 조사·수집·번역 및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교육을 통한 법률정보 리터러시 제고
- 법률정보DB 구축 및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
 - 외국법률번역DB 구축, 법률쟁점DB 구축, 외국입법사례DB 구축
 - 법률자료의 디지털화 :국회도서관이 수집한 인쇄본 형태의 법률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법률정보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등 국내 법률정보기관과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한 법률정보 공유 및 자료 상호 이용 확대
-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법률정보DB와 타 법률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융합 서비스 개발 검토
-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미국법률도서관협회(AALL) 등 법률도서관 관련 국제 협회 활동을 통해 외국 법률도서관과의 네트워크 마련

1-3-8-3. (법원도서관) 국가법률정보 대국민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확대된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인적 인프라 확충 필요
 - 법원도서관 청사 이전으로 대국민서비스 확대 실시 필요
 - 확대된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사서직 전문인력 필요
- 분산된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재정비를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 필요
 - 법원도서관의 주요 콘텐츠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디지털도서관,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 등 주요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분산 및 중복으로 이용자 불편 및 운영의 어려움 초래
- 열람실 대국민 개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충 필요
 - 그동안 법원도서관 열람실이 대법원청사 내에 위치하여 청사보안 등의 문제로 제한되어있던 소장 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일산 청사 이전을 계기로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함

■ 추진과제

□ 법률정보의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사서 인력 확충
- 법률자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전문도서관 역할 강화

□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재정비

- 법률정보의 대국민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재정비 필요
- 청사 이전으로 변화된 오프라인의 대국민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도서관 및 홈페이지 개편사업 추진

□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 서비스 확대

- 열람실 내 조사연구실, 세미나실 등 법률연구공간 이용 활성화
- 법률종사자 등 이용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법률정보 제공
- 생활밀착형 법률 소양 강좌 추진
 - ※ 법원 내 우수한 교수진을 활용하여 지역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된 주제의 법률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

❶ 지역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
- 지역 인력관리체계 구축

❷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 국가 기억 및 지식의 망라적 수집·보존 강화
- 공동체 생활사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❸ 공동체 교류의 플랫폼 기능 강화

-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2-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 현황 및 필요성

-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 관종별 도서관의 칸막이로 인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한계가 있음
- 공공자원의 효율적 대국민 전달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효과적, 효율적 협업을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관리체계 필요
 - 지역 내 개별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개별적으로 만족시키는데 한계
-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도서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과제

□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정립

-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상화 지원
 - 규모, 기능, 역할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 정상화 지원
-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 개선 지원
 - 도서관 서비스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지역도서관에 도서관서비스 보급
 - 도서관서비스 연구센터 설치
 - 도서관 컨설팅, 세미나 개최, 교육지원(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추진 검토)
- ※ 도서관법 제23조 제3호에 근거
- 지역 내 지자체 간, 타 관종 도서관 간 공동 협력사업 운영 지원
 - 인접 지역 협동수서 및 상호대차 서비스 등
 -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 기능 강화

□ 지역 도서관통합관리체계 구축

- 지역 내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포함하는 지역 도서관통합관리체계 구축
 - ※ 도서관법 제23조 제3호에 근거
 - 1차: 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구축
 - 2차: 타 관종 도서관으로 확대 구축
 - 지역 내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검색서비스 제공

<부산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 2019년 부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지역도서관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부산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 부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모든 도서관의 자료관리 체계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원 맞춤형 미래 도서관 서비스 기반 마련

□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공유체계 구축

-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지역 간 불평등 해소
- 지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 인근 지역의 공공도서관 간, 공공도서관 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지식 상호 공유
 - ※ 도서관 평가 지표로 활용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데이터베이스 등의 자원 확보와 이용 활성화 도모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이용자 교육 등에 관한 지식 공유

2-1-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디지털아카이빙시대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자료 보존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인 및 지역사회 내 교류와 사회·문화·경제적 성장 동력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지역 향토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현행 도서관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오직 국립중앙도서관만이 납본권한을 가지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지 않는 지역의 인쇄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필요
- 지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에 대한 납본권한 부여 필요
 -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 지역에서 발행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해 자료의 망라적

수집 필요

- 지방분권 강화의 측면에서도 지역대표도서관에 납본권한을 부여할 필요성 있음
- ※ 도서관법 제23조 제1호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역대표도서관에 납본권한 부여 검토

○ 지역단위의 장서보존 기능 개선 필요

- 공공도서관 공통 문제로 장서수장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보존서고 설치를 통한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공간 운용 필요성 증가
- ※ 공동보존서고 설치: '18년 2월 기준 총 5개 지역(대구, 대전, 전남, 울산, 부산)
- 공동보존서고 운영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실질적인 공동보존서고로서의 역할에 한계

■ 추진과제

□ 지역대표도서관 납본권한 부여

- 지역 내에서 발행한 자료에 대한 납본권한 부여
 - ※ 『도서관법』, 제23조 1항. '사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및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에 근거
 - 납본 대상은 비영리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지역 내에서 출판되는 자료로 확대
 - 납본 대상 기관은 해당 연도에 발행한 자료(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해당 지역대표도서관에 1부씩 납본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자료 납본, 보존, 디지털화 등 협력체계 마련
 - 디지털자원 및 지역 향토자료 아카이빙 지원 시스템 구축

□ 장서보존 기능의 효율적 개선

- 공동보존서고 설치 확대 및 운영가이드라인 수립
 -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 공동보존서고 17개 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지역 공공도서관 및 타 관중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 중, 지역 지식정보 자산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지역대표도서관에서 보존
 - ※ 영구 보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결정
- 지역 단위의 거점형 공동보존서고 운영 확대

- 영구보존이 필요하지 않지만 임시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여 공동 활용
 - 도서관간 협약을 통해 거점형 공동보존서고로 이관된 임시 보존 자료는 협약 도서관에서 공동이용, 일정기간 이용이 없는 자료는 제적
 - 공공도서관에서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자료 중 지역 지식정보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거점형 공동보존서고로 이관 또는 제적
- ※ 원활한 자료이관 또는 제적을 위하여 도서관 평가에서 ‘장서’ 삭제 및 법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자료는 폐기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자료의 최신성 확보

<공동보존서고 사업 계획(안)>

구분		내용
사업명		-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가이드라인 수립 -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1차 년도(2019)	- 공동보존서고 운영가이드라인 수립·연구 및 운영시스템 구축
	2차 년도(2020)	- 시범 지역대표도서관 선정운영
	3차 년도(2021)	- 시범 지역대표도서관 확대운영
	4차 년도(2022)	- 지역대표도서관에 공동보존서고 운영시스템 보급
	5차 년도(2023)	-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안정화 지원
기대효과		- 공공도서관의 장서수장 문제 해소 - 공공도서관 공간 확보 - 방대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 - 공공도서관 운영예산 절감 - 공공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최신성 확보

2-1-3. 지역 도서관인력 관리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공공도서관 서비스 편차 해소 및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인력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필요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수준 미미함
 - ※ '17년 기준 순회사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작은도서관은 전체 6,058개관 중 912개관(15.1%), 상호정보협력망 구축은 작은도서관 1,686개관(27.8%)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관리 미흡
-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수요·공급 관리 및 작은도서관의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 필요
 - ※ '17년 기준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1,553개관(25.7%), 운영인력이 없는 작은도서관 662개관(10.9%)

■ 추진과제

- 지역대표도서관 인력 충원
 - 공공, 작은도서관 지원 및 인력 수요·공급 분석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 1관 당 10명씩 총 170명 인원 확충
- 지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성
 - 지역대표도서관에 지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수요·공급 관리
 - 지역대표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지원/교육/서비스센터) 설립
 - 지자체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 작은도서관 도서관운영자에 대한 교육 확대
 - 작은도서관 모범운영 사례 발굴 및 보급

2-2-1. 국가의 기억 및 지식의 망라적 수집·보존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외에 산재 또는 유출된 한국 고문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문헌의 국가적인 통합관리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 수집력 강화를 위하여 고문헌의 다양한 수집 경로 개발 및 수집의 체계화 등 고문헌 통합관리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립세종도서관이 인문·문화예술 분야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정보 서비스와 함께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장서 확충이 필요
 - 국정과제(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추진과제

- 한국 고문헌 통합관리 강화
 - 고문헌 구입의 확대
 - 미소장 고문헌 구입대상자료 확대
 - 고문헌 수탁 및 수증 확대
 - 고문헌 디지털자료 수집 확대
 - 수집이 어려운 고문헌 디지털 자료 온라인 연계 강화
 - 박물관 등 고문헌 소장기관과의 연계 확대
 - 고문헌 콘텐츠 발굴 및 가치 증대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발굴 및 등재 추진
- 국가문헌의 포괄적 수집 강화
 - 납본제도 시행(1965년) 이전 자료의 전략적 수집
 - 국외 한국관련 자료, 기록물 수집 확대
 - 인문·문화예술 자료 및 정책·연구정보의 전략적 수집

2-2-2. 공동체 생활사 자료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지 않는 지역의 생활사 자료(삶의 기억)들이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열악하게 보관되고 있어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
- 지역의 쇠퇴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전해줄 지역의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될 우려
 - ※ 2018년 현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
- 국내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향토자료 등 지역 정보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됨

■ 추진과제

-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지역)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축적, 창조활동 지원 체계 구축

<경기도 메모리>

◆ 목적

- 경기도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미래세대에 전승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구축

◆ 기능

-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보를 집대성하고, 경기도민의 발자취와 활동을 기록화한 경기도의 역사문화관으로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는 51,868건

- (학교) 학내 삶의 기억 수집·보존 관리체계 구축
- (대학교) 학 내의 연구자 정보, 연구자료의 수집·보존 관리체계 구축
- 지역의 자료 보관 기관(사람) 협력·지원 강화
 - 지방문화원 등 지역의 지역향토자료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기관(사람)에 대한 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 지원 강화
 - ※ 2016년 지방문화원 중 자료관리 인력이 있는 곳은 4.8%, 아카이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16.7%으로 자료관리 취약으로 인해 자료의 소실 위기

2-3-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지리적·정보적·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에서 모든 지역사회의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의 질은 향상되나 개인의 정체성 등 혼란을 초래하여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의 중심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중요
-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직접 실행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 인간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 정주율을 높일 수 있으며, 주민의 문제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공동체 활동 환경 필요
-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추진과제

-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 소모임 활동 및 마을 상담·컨설팅 지원
 - 주민 참여형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주민 공론의 장으로 적극적 활용
- 지역 생활문화모임 활성화
 - 문화교실 공간, 독서활동 공간, 각종 회의, 모임, 강의 등 공동체 활동 공간 확대
-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공동육아, 마을 학교, 평생교육 등 공동체 연결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2-3-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도서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넘어 학습, 토론, 행사,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변화가 요구됨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공동체의 중심역할 수행 필요
-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서비스는 학습 공동체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 전략을 구축해야 함

■ 추진과제

-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교사, 학부모, 학생 커뮤니티 체계구축 및 활성화
 -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험학습 개발 및 확산
- 교육공유공간(Education Commons) 기능 강화
 - 독서클리닉, 학습동아리 지원, 독서토론회
 - 학부모 독서교실 운영

2-3-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단순히 정보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 국내외 대학도서관은 적극적인 융합교류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학습공유공간 개념의 ‘러닝 커먼스(Learning Commons)*’ 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음

* 주어진 자료를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사람이 만나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학습공유공간

- 정보공유·만남·휴식의 공간, 최첨단 디지털 기기 체험 및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변화
- 도서관은 이용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 창조하는 공간으로의 역할 수행 필요

■ 추진과제

○ 협력형 창의활동 공간지원 강화

- 다양한 창의·융합·상상·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토론과 그룹 스터디, 캡스톤디자인 (Capstone-Design)* 등 창의적 활동에 최적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

* 학부생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여 수행하는 실무형 융복합 인재 양성프로그램. 팀 단위로 이루어지며 창의력, 팀워크, 리더십 양성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창의적 종합설계라 부르기도 함

- 학생,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이 만남, 토론, 그룹스터디, 휴식 등 자율학습 활동에 최적화된 창조적 복합공간 제공 확대



<고려대학교 CJ Creative Library>



<센다이 미디어테크>

○ 교육·훈련 및 문화체험, 오락적 서비스 제공 확대

- 멀티미디어 콘텐츠 편집, 생성, 공유서비스 제공
- e-learning Center, 디지털 영상 제작·편집스튜디오, 스터디룸 등 이용자의 리터러시 교육과 학습, 웹디자인, 영상편집·제작 체험 등의 서비스 기반 마련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연세·삼성학술정보관은 전통적인 도서관 시설에 최첨단 멀티미디어 복합공간, 휴식, 미팅, 디지털콘텐츠 이용가능한 U-lounge 복합문화공간, 체험코너, 그룹스터디룸, 프레젠테이션룸, 협업부스와 세미나룸을 포함한 새로운 공간을 구성

❶ 정보의 포용적 공유 확대

- 정보 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도서관 아웃리치 지속적 확대

❷ 공간의 포용적 개방 확대

-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❸ 서비스의 포용적 연계 확대

-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3-1-1.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현황 및 필요성

- 고령화, 국제화,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불평등이 더 많은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정보불평등 계층의 확대와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필요
- 도서관이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서관법」이 있으며, 정보불평등 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규정한 조항이 있음
- 도서관법에서는 정보불평등 대상으로 핵심계층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불평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
 - ※ 도서관법에는 다문화가족은 정보불평등 대상에 없음
- 정보불평등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정보불평등 대상 판별기준 마련 필요

■ 추진과제

- 도서관에 최적화된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도구 개발
 - 지역, 세대, 계층간의 정보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 개발
-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을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방안 모색
 - 정보불평등 유형별·대상별 정보불평등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개발
 -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 해결방안 마련

3-1-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디지털 기기 이용 등 정보 격차 심화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특히, 정보불평등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낮은 편으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정보 격차 해소 서비스 강화 필요
- ※ '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일반국민 대비 정보불평등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5.1%
-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 교육, 정보화기기 개발·보급, 웹 접근성 제고,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4가지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
- 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집단이 지식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악순환 고리, 그에 따른 상대적 격차와 부정적 후광효과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추진과제

- 정보불평등 계층 정보 및 매체활용 교육 강화
 - 맥락이해 문해력 교육 개발 및 보급
 - 미디어 활용 교육 개발 및 교육 강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정보화 교육 추진
 - ※ 사례: 농산어촌 '정보화마을*'과 연계한 도서관 정보화 교육(ex. 농산어촌 어린이 대상 코딩 교육) 추진
 - *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산어촌 간 정보격차해소 및 농산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2001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추진한 사업(327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군인, 환자, 수용자, 장애인 등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환경 및 서비스 확대 필요
 - 특수환경 이용자들의 여가, 미래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특수환경 이용자들을 위한 전문 정보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
-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개선 필요
 - 자료의 대부분이 기증 수집에 의존하고 있고, 지원예산 부족으로 도서 구입 제한이 있어 양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병원도서관) 시설·자료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현황 부재

※ (병영도서관)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운영 중이며, 도서 평균보유량(3,777권), 장서 보유기준 (6,000권)에 못 미침

<진중문고 보급현황>

(단위 : 권, 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보급권수	432,000	702,000	712,311	769,815	734,160	801,540	709,560	765,600
선정 권수	36	54	54	57	56	61	54	58
보급수량(질)	12,000	13,000	13,190	13,500	13,110	13,140	13,140	13,200

※ (교도소도서관) 1관당 소장 장서 평균 7,702권, 연속간행물 0.6권, 연간 200권 증가, 1관당 평균 자료 구입비 16만 원 미만

<교도소 도서관 장서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서 수(A)	364,809	367,094	383,466	368,703	400,496
교도소 도서관 수(B)	50	50	51	52	52
1관당 장서 수(A/B)	6,962	7,296	7,342	7,519	7,702

<2017년 기준 교도소 도서관 예결산액>

(단위: 천원)

구분	이전 회계연도 결산액			도서관 예산액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지원금 및 기부금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전국 합계	8,114	6,160	8,894	9,154	2,800
1관당 평균	156	118	171	176	53

■ 추진과제

○ 특수 환경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 (병원도서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병영도서관) 생애의 단절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서비스 강화
- (교도소도서관) 재소자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차원에서 교도소도서관 활성화 추진
 - 재소자의 교정, 학력신장, 인성함양,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 접근 강화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및 독서문화 증진

- 특수 환경 이용자 도서관 인프라 개선
 - 장서 보유 확충 및 양서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 자료열람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확보
 - 상호대차, 이동도서관, 방문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한 접근성 개선

3-1-4. 도서관 아웃리치 지속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 및 평등한 기회 제공, 독서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도서관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경제적·신체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접근 자체가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 필요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도서관이 원거리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 등이 취약하여 접근성이 낮음
- 찾아가는 서비스, 우편서비스 등 확대 필요

■ 추진과제

-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농산어촌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 농산어촌 지역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순회문고 운영
 - 지역문화 전문인력(활동가)을 활용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 농산어촌 지역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도서관(연 100개관)
 - 농산어촌 생활형 공공시설에 U-도서관 설치 검토
- 우편배달 서비스 확대
 - 임산부 및 영아, 장애인, 노인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불평등 대상을 위한 우편 도서대출서비스 확대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공공 공간의 기능적 폐쇄성, 개인의 점유 등으로 인해 공간의 평등하고 공정한 활용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누구나 도서관 공간을 공평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개방공간의 지속적 확대 필요
 - 특히, 공간이용의 결정에 관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빈곤·소외계층, 노인 계층들을 위한 공간확대 필요

■ 추진과제

- 공유 개방공간의 확대
 - 독서실 기능의 학습공간을 자료이용공간으로 점진적 전환
 - 도서관 1층 공간은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기능(휴식 공간, 카페 등) 부여
 - 다중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 추진
- 공식/비공식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
 - 각종 재난(지진, 폭염, 한파 등)시 도서관이 사회적 피난처 역할 수행
 -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서대상 교육 실시

<재난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 지정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재해구호법시행령」 제3조의 3

◆ 지정기준

- 지역 여건(발생가능 재난종류, 인구수, 최근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하여 임시주거시설의 장소와 규모 선정
- 산간·도서 등 격오지 지역도 필요 지정하되, 해당 격오지 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역시설물 지정
- 공공건물, 학교(국·공립학교에 한정),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에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이하 생략)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개별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서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도서관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음
- 공공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필요
 -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공공 도서관이 보급과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 중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기본적 문화서비스 시설로 기능하므로 보다 세심한 환경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함
 -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필요

■ 추진과제

- 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조사
-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개선
 - 신체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물리환경 개선
- 도서관 안내정보 개선
 - 신체적, 언어적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한 안내정보 설치
-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한 편의 서비스 제공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도서관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계층이 존재
 - 소외계층의 필수적인 서비스와 도서관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향유기회 제공
 - 도서관이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 생애별 '삶의 문제'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 이용자 욕구의 중복과 다원화로 인해 단일 서비스의 한계 직면
 - 문화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중복욕구를 지닌 수요층의 증가
 - ※ 부부+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회서비스 중복욕구 가구 비율은 43.2%
 - 선도적인 문화서비스기관으로서 삶의 복합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체계 마련 필요

■ 추진과제

- 영유아·어린이, 여성 대상 서비스 강화
 - 저출산시대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적 도서관서비스 확대
 - 문화·인문교육과 아이 돌봄 융합모델 개발 및 확산
 - 지역의 여건에 따라 도서관 내 놀이공간, 장난감 도서관 등 구축 활용
-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 예방적 건강정보의 제공 창구로 도서관 활용
 - 도서관과 보건·복지 시설과 연계 강화
- 구직자 대상 서비스 강화
 -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인생 이모작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강화
- 소외계층 서비스 강화
 - 소외계층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 연계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이해 제고 및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 ※ '17년 재외동포 약 7백 43만 명, 전년대비 증감률 3.4%,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1위 중국(약 2백 55만명), 2위 미국(약 2백 49만명), 3위 일본(약 82만명)
- 국내 다문화 현상의 심화 가속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외국인 간 상호 이해 존중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의 역할 필요
 - 다문화서비스 개발과 보급 확대, 지원 강화 필요
 - ※ '18년 5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장기체류+단기체류) : 약 225만 명(국내 인구 대비 약 4.4%)
 - ※ 국내 이주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자수(국가도서관통계) : 2017년 102만 명을 넘었으며, 최근 6년간 공공도서관 이용 이주민 수 4배 이상 증가 추세

■ 추진과제

- 재외 한국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 해외 한국자료실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 '17년까지 총 27개관 설치, 9.4만여 책 자료 지원
 - 해외 한국 어린이를 위한 전자책 서비스 검토
- 국내 이주민(외국인 포함)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 다문화서비스 개발과 보급 확대, 지원 강화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서비스 업무 담당자 교육과 세미나 개최, 우수사례 발굴,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홍보 등) 지속 추진
 - 여성가족부(레인보우지 발행), 법무부(이주민 조기적용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 국내 주민들의 다문화적 포용성과 상호문화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 다문화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② 도서관 협력 강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도서관 국제교류 강화

③ 도서관 정보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 오픈 액세스(open access) 기반구축 및 확대
-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④ 도서관 인프라 확대

-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4-1-1.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도서관 직원 및 전문인력의 부족 심화

- (공공도서관) 지난 5년간 공공도서관의 수는 177개 관 증가한 반면, 1관당 도서관 정규 직원의 수는 0.9명 감소, 사서 직원은 0.03명 증가하여 정체한 수준

※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원수 8.82명('13년) → 7.92명('17년)

1관당 정규사서직원수 4.25명('13년) → 4.28명('17년)

-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교수학습활동과 독서교육 기능 효율적 미수행

※ '17년 1관당 사서교사 수 0.077명, 1관당 사서자격 보유 직원은 0.34명

- (대학도서관) 대학의 학술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학도서관 사서인력의 부족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국가의 연구경쟁력 약화를 초래

※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000명당 사서직원 수 '17년 4년제/대학원이 1.1명, 전문대학 0.5명

- (전문도서관) 2016년 말 기준으로 전문도서관 607개 기관의 1관당 정규직 직원수는 0.15명 정규직 사서는 0.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병영도서관) 일부 사단급 이상 부대 사서편제(군무원)를 제외하고는 전문사서 부재로 주로 정훈병이 병영도서관 관리

- (교도소도서관) 전국 52개 교도소 도서관 사서 인력 전무하며, 교정직도 전임 직원이 배치된 교도소 도서관은 8곳으로 대부분 겸임

■ 추진과제

□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서인력 확대 추진

○ 도서관 직원의 직무분석 및 사서 인력의 수급현황 조사를 통한 사서인력 배치 확대를 위한 근거 확보

① 사서의 직무분석

② 도서관 인력의 직무현황 조사

③ 사서의 수급현황 조사

- 도서관법 하위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이를 통한 사서배치 기준 준수
 - ※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사서수 4.3명('17년) → 6.0명('23년)
 - ※ 공공도서관 국민 1,000당 평균 사서수 0.086명('17년) → 0.12명('23년)
 - 도서관장 사서직 배치 확대
-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대학도서관계 현장 의견 수렴, 현행 대학 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문제 조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실적 개정 필요
-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강력 준수하여 모든 초·중·고에 1명 이상의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되, 정규직 배치를 원칙
 - ※ '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서교사 및 사서 학교당 1명 이상 의무 배치
 - 학교도서관 1관당 전담인력(전문자격미보유 제외) 0.42명('17년) → 0.8명('23년)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전문자격미보유 제외) 배치 비율 41.7%('17년) → 80%('23년)

□ 전문도서관 인력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 전문도서관 인력배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 마련

□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인력 확대

- (병영도서관) 전문사서제 도입
 - 향후, 사(여)단급 부대까지 병영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검토
 - 전문사서가 사(여)단 예하 대대급 병영도서관 운영 지도
- (교도소도서관) 인력체계 구축
 -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교정기관에 한해 시범적 사서 채용, 향후 점진적으로 전국 교정기관에 사서 채용 확대
 -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교도소도서관 담당 인력 구축

4-1-2. 사서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서역량 및 조직의 혁신 필요
 - 기존의 정보활용교육과 데이터가 결합된 '정보리터러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

- 디지털 및 기술활용교육 등 사서재교육과 큐레이션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서역량 변화가 요구됨
- 이용자 욕구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의 역할 변화 필요
 - 전통적 자료관리의 역할을 극복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기획능력 배양 필요

■ 추진과제

- 사서 직무분석을 통한 미래역량 확인
 - 사서 직무분석 기반 미래역량 확인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사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보변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적, 방법론적 혁신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 디지털 및 기술활용 교육 강화
- 교육시스템에 대한 혁신
 - 미래 사서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제공
- 도서관 조직진단 및 개선방향 설정
 - 도서관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한 조직의 혁신

4-1-3. 도서관 관련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도서관인력기준의 법적구속력 약화
 - ※ '16년 전국 공립공공도서관 사서 충원률 18.2%
 - ※ 989개관의 사서 수는 4,238명/사서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법정인원 23,222명으로 18,984명 부족
- 도서관 평가 현실적 개정 추진 필요
 - 도서관 운영평가가 자치단체의 정책평가가 아닌 단위도서관의 서비스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서, 부족한 자원투입에도 과도한 산출을 요구하여 도서관 직원의 노동 강도가 과부하되어 열악한 업무 환경 초래
- 대학도서관 평가결과와 대학평가와의 연계성 미약
 - 사서배치를 포함하는 대학도서관 평가결과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성이 미약하여 실질적 인 효과 전무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보존 및 공유 체계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도서관법」 개정(2016.2.3.) 및 시행(2016.8.4.)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및 공공기관 발행자료의 디지털파일을 납본 수집하고 있으나 출판·유통사의 우려와 소극성으로 인해 온라인자료의 포괄적 수집에 한계가 있음
 -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645만 건, 웹자원 138만 건 (국내 발간자료 및 국내외 한국 관련자료)

■ 추진과제

□ 도서관인력기준 법적구속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에 도서관정책 담당 부서 설치 및 사서 배치
 -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 설치 및 정책 담당 사서 배치
- 인력배치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지수 개발과 운영평가와의 연동 추진
 - 운영주체(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에 대한 인력을 포함하는 도서관 정책지수를 개발 및 공표
 - 도서관정책지수(Library Policy Index : LPI) 도서관 투입예산, 법정사서배치율, 도서관장 사서 배치율 등
 - 도서관 운영평가에 사서배치 부분 배점 확대 및 운영주체(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평가를 적극반영
 -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사서법정배치율 반영
 - 각종 공모사업 및 수상기관 결정에 도서관 정책지수 반영

□ 대학도서관 평가결과 대학평가 및 각종 인증에 활용

- 지속적인 사서배치 현황 모니터링
 - 대학도서관 사서 배치현황 및 타 부서 이동현황(2년 주기 조사)
- 대학도서관진흥법에 사서배치를 포함하는 대학도서관 평가를 대학평가와 각종 대학 인증에 활용

□ 디지털자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합리적 조정

- 출판·유통 관련기관과의 합리적 조정

□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 및 중장기 정책 평가체계 마련

- 제3차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방향따라 운영평가 지표 개선 추진

□ 도서관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강화

- 도서관운영평가 정책환류체계 구축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의 수립·심의·조정하는 역할 담당
- 도서관의 준립과 기본 목적을 위협하는 오늘 날의 상황에서 도서관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도서관정책에 관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을 수립·심의·조정에서 관리·의결 기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p>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 3. 25.></p> <p>④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 중앙집중적인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종류별로 분산되어 추진해 온 도서관 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역할 증대 및 중앙과의 협력 강화가 요구됨
 -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항 사항
 -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항 사항
- 지역 내에서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등의 관계 설정이 수평적이고 협력적 재구성되어야 함

■ 추진과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 도서관법 제12조 개정 검토를 통한 도서관 정책 기능 강화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관리·의결까지 역할 확대

□ 미래를 위한 도서관 선언

-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개방성, 정보의 민주성을 기본으로 한 도서관 선언문 작성
 - 도서관은 개인의 발전과 사회 성장, 모든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를 위해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위해 필수적인 기관임을 강조
 - 모든 분야에서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이용자가 지식정보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자유 보장 강조

<도서관헌장(1967)>

- ①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②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
- ③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④ 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자주자활 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 ⑤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써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한다.

□ 지역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 협력체계 강화

- 지방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지역대표도서관-기초자치단체 도서관간 협의체 운영 권고
 - 매년 4회 회의를 통한 정책 협의(협의회 횟수 변경 가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중앙)-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지역) 협의체 구축
 - 매년 1회 회의를 통한 정책 협의(협의회 횟수 변경 가능)

4-2-2. 도서관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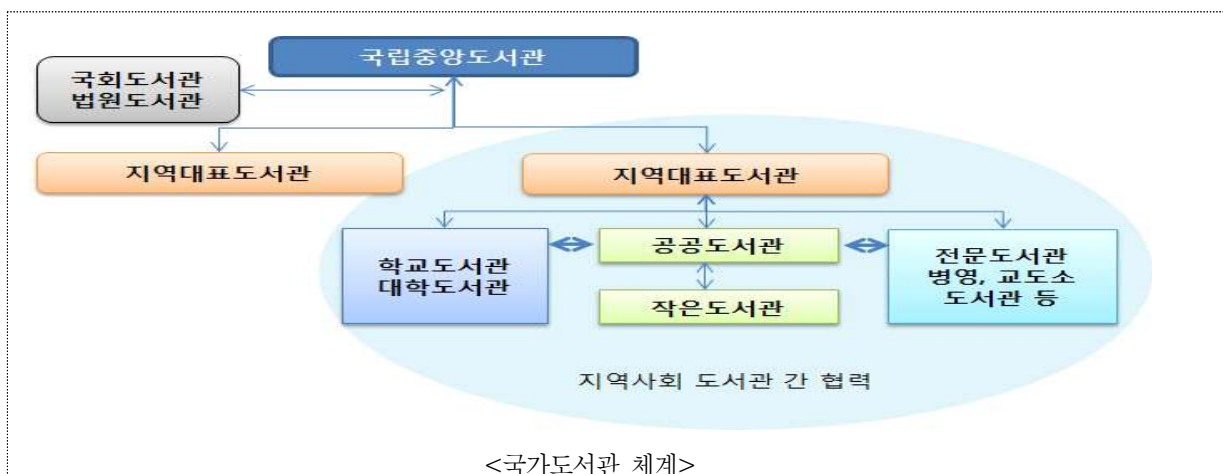
■ 현황 및 필요성

- 경계 없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개별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는 이용자인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데 한계
 - 도서관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필요
- (지역대표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지역 내 도서관 컨설팅 및 연구·지원·교육기능 수행을 위해 국립 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필요구축
- (도서관 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도서관 생태계를 구성하는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사이의 소통창구가 없어 상호간의 이해 및 협력 저조
- (도서관운영부처) 교육부(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국방부(병영도서관), 법무부(교도소도서관), 과 기부 등(전문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부처에 도서관 전담 부서 또는 전담인력 확보 필요
- (남북한 협력) 도서관 통합을 위한 대응전략 및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과제

□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 지역자료 납본, 보존, 디지털화 등 협력체계 마련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계 리더쉽 강화



□ 지역대표도서관 중심 지역 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 내 모든 관중 협력체계 구축(공공, 대학, 학교, 전문)
 - 지역 공공, 학교, 대학, 병영, 교도소도서관 등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

□ 공공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협력 체계 구축

- 납본 수집 활성화를 위한 출판·유통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상시소통기구 신설
- 지역 서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확대
-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 기반의 대국민 공유저작물 이용환경 개선

□ 도서관 운영부처 내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추진

- 교육부 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 ※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 설치)에 전담부서 설치 근거 명시
- 과기부, 국방부, 법무부 등 도서관 운영부처 내 전담인력 확보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 마련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19년)
- 남북한 도서관 기본용어 조사·연구(2023년~)
- 남북한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국내 TF 구성(2022년~)
- 남북한 도서관 관계자 공동 참여 협의체 구성(2023년~)
- 남북한 대표도서관 간 교류·협약 체결(2023년~)
- 특수자료 점진적 개방
 - 특수자료의 분류·판단 기준으로서 특수자료취급지침 개선
 - 관련기관(통일부, 문체부, 국정원 등)과의 협력방안 강구
 - 특수자료취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2-3. 도서관 국제교류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등 국제도서관 단체에의 가입과 활동, 주요 국립도서관과 도서관대표단 상호교류, 국제자료 교환, 국제기구자료 수집, 한국학자료 지원 등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각국 도서관과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16개국 18개관)
 - IFLA 아시아-오세아니아 분과 등 총 7개분과 상임위원 활동
 - IFLA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분과 mid-term 회의 개최(2018년)
- 국제회의 참가뿐 아니라 유치를 통해 한국의 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발표 등 도서관 국제기구 참여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 추진과제

□ 국제개최 및 참가 활동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아시아-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CDNL/AO) 개최 추진(2020년)
- 더블린 코어(DC) 국제회의 개최 지원(2019년)
- WLIC 및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개최 유치 협력 추진(2023년)
- IFLA 상임위원회 활동 및 국제기구 학술발표 활성화
 - WLIC, 북미아시아학회(AAS), 유럽한국학회(AKSE), 세계고지도협회(IMCoS) 등

□ 해외 한국자료실 내실화

- 해외 한국자료실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 '17년까지 총 27개관 설치, 9.4만여 책 자료 지원
- 해외 한국자료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기관별 사업현황 조사 공유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
 - 한국학 자료 포털 구축
- ※ 사례: 필리핀 리잘도서관은 한국문화원과 협력을 통해 한국학 자료 포털(Portal of Korean Studies Resources)*을 구축하여 필리핀 내 모든 한국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로 한국학 자료 종합목록의 역할 수행

* 여러 지역의 자료센터, 도서관 및 연계기관이 소장한 한국학 자료의 이용 및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증진과 한국학 참고자료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 도서관 간 국제교류·협력 확대

- 국립도서관 간 교류·협력 확대
 - 해외 주요 도서관 간 양해각서 체결 확대(2018년 16개국 18개관 → 2023년 18개국 20개관)
 - 국립도서관 간 업무교류를 통한 경험 공유 및 협력 기반 마련(2018년 3개국 3개관 → 2023년 5개국 5개관)
- 도서관 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공공도서관 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4-3-1. 오픈액세스(Open access) 기반구축 및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학자들의 다수 논문이 외국학술지에 투고되는 상황에서 논문투고와 이용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오픈액세스 추진 모델의 개발 등 국가차원의 OA정책 개발 필요성 부각되고 있음
 - 200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OAK(오픈액세스코리아)리포지터리 사업 추진 중
 - ※ '16년 5개, '17년 3개, '18년 3개 총 37개 기관에 OAK리포지터리 보급
-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구독비 지원과 국가 라이선스 구독 추진 필요
 - 대학 재정난 악화로 도서관 예산이 감소되어 해외 학술DB 구독 종수 축소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 최근 4년간 대학 자료구입비 : 2,158억 → 2,060억으로 98억 감소, 4년간 KESLI 컨소시엄DB 평균 인상률은 7.2%

■ 추진과제

-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개발로 국가지식자원 유통체계 개선
 - 한국형 오픈액세스 추진 모델 개발
 - 국내 연구 성과물의 오픈액세스 출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정부의 학술데이터베이스 구독 예산 지원과 국가 라이선스 구독 확대
 - (국가 예산 지원) 정부 R&D 총 예산의 0.5%(1,000억)를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DB 자료 확충 예산으로 지원
 - 정부 R&D 총 예산의 0.5%(1,000억)를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DB 자료 확충 예산으로 지원하여 도서관을 통한 대학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 조성
- (국가 라이선스 확대) 정부 R&D예산에서 지원하는 해외 학술DB를 국가 라이선스화하여 지역사회와 유관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에게 개방

4-3-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기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화 등을 통한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필요
- 디지털자원 공유·협력 강화 필요
 - 디지털화 자료의 공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공유·융합·연계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와 이용협약 도서관 간 전송에 대한 법적 권한 보유, 약 2,100 개관과 협약

■ 추진과제

- 웹 아카이빙 및 디지털자원 보존체계 구축
 - 웹 아카이브 구축 확대
 - 디지털자원의 영구 보존을 위한 ‘비공개 아카이브’ 구축 확대
 - 출판 전자도서 원본 외 전자저널, 온라인자료 등 비공개 수집·보존 확대
 - 디지털자원의 장기 보존 정책 수립
- 디지털화자료 이용협약 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
 - 국내외 협약도서관 확대(국중: 2018년 2,096개관 → 2023년 2,296개관)
 -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도서관 보상금 지속 지원
- 디지털장서 활용 저해요소 개선
 -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화한 고아저작물에의 접근 허용
 - 도서관의 공공성 및 저작권보호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전향적 논의 필요
 -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전송에 대한 보상금 사전 공탁제의 사후 정산제 전환 검토
- 검색성능 및 접근성 향상
 - 전문(full-text) 검색을 위한 처리 기술의 품질 관리 및 이미지 품질관리 제고
 - 기관별 뷰어 프로그램 설치 문제 해결

4-4-1. 도서관의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국제적 수준의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이 요구됨
 - 현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신규 건립을 통한 도서관이 확충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하면 공공도서관 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요구됨

<국가별 1관당 인구 수>

(단위: 명)

구분(연도)	한국(2017)	미국(2016)	영국(2014)	독일(2017)	일본(2017)
1관당 인구 수	49,692	34,301	15,465	11,151	38,902

-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 기조에 따라 노후 도서관의 리모델링 및 공공도서관 지속 확대 필요
 - ※ ‘17년 11월 기준 전국 노후 공공도서관은 총 1,010개관 중 230개관
- 지역 교육문화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및 정보 양극화 해소 필요
 - 정부의 생활 SOC사업과 연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확대
 - ※ (규모) ‘18년 54개소/70,159백만원 → ‘19년 107개소/81,900백만원
 - (지원대상 / 비율) 지방자치단체 / 40% 정률지원
- 창의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리모델링, 편안한 도서환경제공을 위한 병영, 교도소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 필요

■ 추진과제

□ 공공도서관 지속 확대

- 공공도서관 확대 <‘22년까지 1,400개관 목표(1년에 약 63개관)>
 - ※ 국정과제 기준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공도서관 수(개관)	1,010	1,083	1,146	1,209	1,272	1,336	1,400
1관당 인구 수(명)	51,184	47,503	45,057	42,855	40,860	39,015	37,330

-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19년 50개→'23년 230개)

※ '17년 현재 25년 이상의 노후 공공도서관은 230개

○ 작은 도서관의 확충

※ (작은도서관 확충) 정부의 생활 SOC사업과 연계 '22년까지 6,687개관 목표

<작은도서관 확충 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작은도서관 수(관)	6,179	6,302	6,428	6,556	6,687
전년대비 증감률(%)	2.0	2.0	2.0	2.0	2.0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 및 공간 혁신 리모델링 지원

○ 편안한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병영, 교도소도서관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지원

▣ 도서관 장서 확충

○ 이용자 중심의 장서 확충 지속(국민 1인당 장서 수, '17년 2.03권→'23년 2.5권)

▣ 도서관 공간 혁신 지원

○ 도서관건립위원회 구성 운영

- 신규 건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도서관건립위원회 구성 제도화

○ 도서관 건립 사전 평가제 정착

- 「도서관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 마련

○ 생활 SOC 사업 방향 재정립

-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확충 방향에서 인력과 프로그램 확충을 우선 추진

○ 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 시 반영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

- 시민의 이용형태나 방식, 인구 구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구성등

○ 도서관 건축상 제정 추진

※ 현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 운영하는 '문화공간상'에 도서관 부문 있음

미국에서도 미국건축가협회(AIA)와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매년 도서관 건축상을 선정하고 있음

4-4-2.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 현황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의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하여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도서관 구현 필요
 - 이용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챗봇, 스마트그리드, 로봇, IoT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등의 도입 필요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축적된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발 필요
- ※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17년 기준 660개관 참여, 회원 1800만명, 대출이력 8.5억 건 수집 중

■ 추진과제

□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도서관 서비스 개발·보급

□ 통합 반응형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모바일 기기 특성을 적용한 통합 플랫폼 구축
 - 웹 기반 멀티플랫폼, 멀티 디바이스 지원, 반응형 웹기술 구현 등
 - 다양한 디지털기기에서 콘텐츠 서비스가 구동되는 N-스크린 구현

□ 도서관 인공지능(L-AI) 서비스 개발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

- 도서관 인공지능(L-AI) 서비스 개발
 - 도서관 데이터 활용 지식베이스 구축
 - 챗봇 등 채팅 플랫폼 활용 서비스 개발
- 사물인터넷 기반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
 - 도서관내 사물인터넷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 구축
 - 이용자 활동 및 환경 데이터 수집·관리

과제별 협력기관

추진과제	소관 및 협력부처
분야 1. 개인의 가능성 발견	
1-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1-1-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1-2. 소통·토론형 사회적독서 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2. 이용자 정보접근 편의성 확대	
1-2-1.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2-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1-3-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교육부, 교육청
1-3-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교육부
1-3-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문체부,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 등 각 부처
1-3-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문체부, 국회, 법무부
분야 2. 공동체 역량 축적	
2-1. 지역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2-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1-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1-3. 지역 도서관인력 관리체계 구축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및 교육청
2-2. 공동체의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2-2-1. 국가 기억 및 지식 망라적 수집·보존 강화	문체부
2-2-2. 공동체 생활사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2-3. 공동체 교류의 플랫폼 기능 강화	
2-3-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3-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교육부, 교육청
2-3-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교육부

추진과제	소관 및 협력 부처
분야 3. 사회적 포용 실천	
3-1. 정보의 포용적 공유 확대	
3-1-1. 정보 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문체부, 통계청
3-1-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문체부,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3-2. 공간의 포용적 개방 확대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및 교육청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3-3. 서비스의 포용적 연계 확대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노동부, 지자체 및 교육청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문체부, 외교부, 여가부, 지자체 및 교육청
분야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4-1.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4-1-1. 도서관 사서인력 지속적 확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지자체 및 교육청
4-1-2. 사서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문체부, 교육부
4-1-3.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2.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4-2-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등
4-2-3. 도서관 국제교류 강화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3.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4-3-1. 오픈 액세스 체계구축 및 확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4-3-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4. 도서관 인프라 확대	
4-4-1.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문체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등 각 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
4-4-2. 스마트도서관 모델구축 및 시범사업	문체부, 과기부